

## 환경처, 축산폐수처리시설 규제 강화

### - 소규모 축사도 폐수처리시설 의무화

환경처는 3월 9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허가(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대상 규모를 확대 조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대상 규모가 현재보다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에 따르면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규모는 돼지사육시설의 경우 축사면적 1,400㎡ 이상을 700㎡ 이상으로 하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취수시설로부터 우수거리 10Km 이내의 상수원 상류지역(광역상수원인 경우에는 20 Km이내의 상수원 상류지역)에서는 면적 350㎡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신고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규모도 축사면적 250㎡ 이상 1,400㎡ 미만은 700㎡ 미만으로 조정하고, 간이축산폐수 정화조의 설치대상 지역 및 규모를 축사 70㎡ 이상 250㎡ 미만으로 규모를 확정했다.

소(말)의 사육시설은 허가대상인 경우 축사면적 1,200㎡ 이상(운동장면적 포함)을 600㎡ 이상으로 하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취수시설로부터 우수거리 10Km 이내의 상수원 상류지역(광역상수원인 경우에는 우수거리 20Km 이내의 상수원 상류지역)에서는 면적(운동장포함) 450㎡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신고대상 규모는 축사면적 350㎡ 이상 1,200㎡ 미만은 300㎡ 이상 600㎡(운동장면적포함) 미만으로 확정했다.

### 돼지고기 국영무역대상서 제외

#### - 정부, 25일 UR 농산물이행계획서 대폭 수정, GATT에 제출

돼지고기 등 21개 품목이 국영무역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정부는 UR 농산물분야 이행계획서(CS) 검증과정에서 미국 등 이해당사국의 압력에 밀려 당초의 개방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농림수산부는 25일 우리나라가 지난 11일 제출한 UR 농산물 분야 이행계획서의 검증과정에서 미국 등과의 양자 협상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농산물분야 이행계획서를 일부 수정, GATT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날 최종확정된 CS에서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관리하려던 품목을 당초 1백18개에서 97개로 21개를 줄였으며, 관세율을 올리려던 3백82개 품목중 3백54개와 고율관세를 적용하려던 71개 품목중 31개 등 모두 3백85개 품목의 관세율을 '92년에 제시한 수준으로 환원했다.

또 34개 품목에 대한 종량세부과방침도 철회됐으며 쌀 수입량은 우리측의 당초안을 수용, 쌀시장 개방 첫

해인 내년도 쌀 수입량은 5만 1천톤으로 결정됐다.

국영무역에서 제외된 품목은 돼지고기, 닭고기, 전지분유 등 21개 품목이며 종량세와 종가세를 선택적으로 부과하려던 포도, 키위 등 34개 품목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전체 농산물 1천 3백12개 품목중 고추, 콩 등 63개 품목은 종가세와 종량세를 선택적으로, 나머지 1천 2백49개 품목은 종가세를 적용하게 된다.

이로써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등은 국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2~3배 낮은 상황에서 100% 안팎의 관세만 징수할 경우 국내 농가들의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영무역이란 정부가 수입을 주도하면서 상품의 수입가격에 관세 및 수입제비용과 적정이윤을 부과한 가격 즉, 수입원가와 국내도매시장 경락가격과의 차이를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농산물 개방이행계획서 변경내용

시	기	구	분	당초 일	최종 일
개	방	품	목	1,312	1,312
종	량	세		97	63
국	영	무	역	118	97
(마	크	업)			
한	도	양	허	102	71
( 실	링	바	인		
당 )					

## SIEMSTA '94년 11월 KOEX에서 개최

### - 자동화시설 및 각종 세미나 개최

지난 3월 3일 한국종합전시장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94 서울국제 농림축수산기계 박람회 개최에 앞서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농림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종합전시장, 한국농기공업협회가 주관하는 SIEMSTA '94는 오는 11월 7~13일까지 7일간 개최할 계획이다.

'92년 처음으로 개최할 당시 참가규모는 전세계 17개국 195개 업체에서 2,000여종의 품목이 전시되었으

며, 31만 8천여명이 관람하는 등 관심을 모았었다. 특히 관람객의 70% 이상이 현장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많은 정보 및 기술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SIEMSTA '94에는 20개국 250개 업체에서 2,500~3,000여종이 전시될 예정이고, 앞으로도 2년마다 개최함으로써, 해외 농업기술의 국내 전시로 최첨단 기술 및 시설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여, 발전적이고 안정된 산업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 축산물 가격안정대 범위 의견차이

### - 합리적 가격대 산출이 중요

금년도 축산물에 대한 가격안정대 범위를 놓고 연구기관, 학계,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최근 관련기관에 따르면 돼지의 상한가격과 하한가격은 각각 농경연 15만 4천원, 10만 7천원, 축협 16만 6천원, 12만 6천원, 양돈협회 16만 2천원, 11만 9천원, 영남대학교 14만원, 10만 3천원으로 제시했다.

농림수산부가 축산물 가격안정대 사업을 운영하는 목적은 가격안정대를 통한 축산경영합리화로 양축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축산경영지표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한편 금년도 축산물 가격안정대 범위와 관련하여 농림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UR타결에 따른 우리 축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3년만에 냉동돼지고기 긴급 수입

### - 농림수산부, 수급조절용 5천톤 수입 결정

지난 3월 5일 냉동돼지고기 5천톤을 3년만에 처음으로 수입키로 했다.

농림수산부의 발표에 따르면 겨울철 자돈설사병 질

병이 작년보다 심하지 않은점과 배합사료생산동향 및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올 한해 수요량은 66만 2천톤(내수 64만 8천톤, 수출 1만 4천톤), 공급량은 65만 5천톤으로 전망하고 부족분 7천톤을 긴급 수입할 계획이다.

수급상 부족한 7천톤중 우선 5천톤(수급조절용 3천톤, 육가공원료용 2천톤)은 이달 중순경에 도착·판매할 계획이다. 그러나 육가공업체에서 전후지 수입단가가 맞지 않아 수입을 포기함에 따라 육가공원료용 2천톤은 축협에서 수급조절용으로 수입할 계획이다.

수입돈육 수급조절용 3천톤중 삼겹살 2천300톤, 갈비 700톤에 대한 입찰을 3월 15일 축산무역에서 실시하였으며, 국내외의 11개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 시·도 및 생산자단체 합동으로 농가의 돼지출하를 확대토록 독려하고 있다.

## 「효율적인 가축분뇨처리…」 심포지움 개최

### — 4월 13일, 축협중앙회 대회의실

축산신문사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축협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효율적인 가축분뇨처리방안 모색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최근 가축분뇨가 환경공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어 날로 어려워지는 축산경영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축산환경관련부처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보다 실질적인 가축분뇨처리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양축가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집중토론, 효과적인 대안을 강구하는 한편 가축분뇨처리의 현주소를 정밀진단한다.

주제는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 이갑일 과장이 축산정책차원의 가축분뇨 처리대책, 축협중앙회 유재일 부부장이 가축분뇨의 자원화 방안, 왕궁신용협동조합 권

대식 전무의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의 실제효용 사례의 순으로 발표된다.

## 「렙토스피라」 진단법 개발, 정확도 95% 이상

### — 가위연, 종합효소연쇄반응 이용

가축위생연구소(소장: 박근식) 세균과는 가축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전염성 질병인 렙토스피라병 진단법을 새로 개발했다.

지금까지 렙토스피라병 진단은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원인균의 분리와 혈청학적 방법으로 진단돼 진단기간이 7~30일 정도 소요되고 정확도도 낮아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진단법은 종합효소연쇄반응(PCR)을 이용하여 렙토스피라병원균에 특이유전자를 인공합성해 진단하는 방법으로 진단기간도 1일 이내에 가능하고 정확도도 95% 이상으로 매우 높다.

가위연은 이번에 새로 개발된 진단법을 공중진단법으로 채택토록 건의할 예정이며,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 진단기술을 전수,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렙토스피라병은 전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사람과 동물에 모두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특히 동물에 감염되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전염병이다.

## 축산분뇨처리율 '97년까지 76%로 향상

### — 환경처, 공동처리시설 확충에 역점

환경처는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처리율을 오는 '97년까지 76%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한 수질개선사업을 발표했다.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에 따르면 '97년까지 축산폐수처리율은 76%로, 분뇨처리시설은 '96년까지 100% 위생처리 한다는 방

침이다.

환경처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천 1백 56 억원을 투입해 현재 가동중인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21개소에서 82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설치중이거나 계획중인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보면, 한강지역 22개소중 광주군에 3개소가 설치중이고, 여주군등에 19개소는 '97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 농발위 여론수렴 간담회 개최

### - 각도 분야별 대표자 의견청취

지난 2월 1일 농어촌문제에 대한 대통령 직속의 민간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가 발족하였다.


농어촌발전위원회(위원장: 김범일)는 농어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3월 10일 전북을 시작으로 11일 경기, 제주, 전남, 17일 경북, 18일 강원, 충남, 경남, 25일

충북을 순회하며 도단위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각 분야별 발표자들은 농발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UR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건의하였다.

특히 축산분야에서는 ▲배합사료 등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축산 용자자금의 장기저리(금리 5%→3%, 기간 5년→20년) 지원 ▲축산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을 적극 건의하였다.

농발위원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여론을 검토·분석하여 발전하는 농어촌이 될수 있도록 대통령께 당면문제들을 직접 건의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참석자들에게 약속했다.

또한 각 도지사들도 이번 간담회를 끝까지 참석하며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현실적으로 도에서 시정할수 있는 내용들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계속 마련하여 도내의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 “낙농현장 100문제 해결”

알프스축산기술센터 정인걸 박사의 선진낙농기술시리즈 제3탄 “낙농현장 100문제 해결”(부제: 낙농현장에서 부딪히는 100가지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나왔다.

이 책은 일본 데어리 제팬사가 일본 낙농가들이 사양관리를 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문제들을 자문자답한 내용으로 1992년에 출간한 “낙농가의 오해 100”을 편역, 출간한 것이다.

유우관리를 위한 약품, 소독제제 사용방법과 컴퓨터 피딩, TMR사양관리, TMR에 혼합하는 원료단미사료의 특성 및 장단점 등이 200여 페

이지에 걸쳐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 실무자 뿐만 아니라 사료업체 영업요원, 축산관련학과 학생들에게도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축협중앙회, (주)퓨리나코리아를 비롯한 국내의 대형 사료업체, 기자재업체, 동약업체 등이 협찬했다.

정인걸 박사는 이 책에 이어 선진낙농기술 네번째 시리즈 “젖소 스트레스 대책”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의: (02)871-5836